

저소득층 아동의 발달과 놀이에 대한 연구

The Development and Play Behaviors of Children in Low-Income Families

김 명 순*

Kim, Myoung Soon

김 창 복**

Kim, Chang Bok

이 미 화***

Lee, Mi Wha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developmental levels and explored play behaviors in 194 4- and 5-year-old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attending 18 daycare centers in Seoul. The Developmental Test for Korean Kindergartners(Korea Institute Curriculum & Evaluation, 1996) was used to assess developmental levels in seven areas. Play behaviors were observed during free-play in their classrooms. Data were analyzed by two-way ANOVA and x^2 . Results were that the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showed highest scores in motor skill development and the lowest scores in mathematical and scientific development. The children engaged most frequently in group-functional play, followed by onlooker behaviors, group-dramatic, and group-constructive play. Onlooker behaviors were the most frequent activity of the 4-year-olds, and the block corner was the most frequently used area during free-play.

Key Words : 저소득층 아동(children in low-income family), 발달수준(developmental level), 사회인지적 놀이(socio-cognitive play)

* 접수 2001년 12월 31일, 채택 2002년 1월 19일

*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조교수, E-mail : kimms@yonsei.ac.kr

** 인천대학교 겸임교수

*** 동덕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강사

I. 서론

빈곤이란 학자들에 따라 개념 정의가 다양하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 소득에 기준을 두고 분류하는 것으로 절대적 빈곤 대 상대적 빈곤으로 구분된다(강명순, 2000). 절대적 빈곤이라 함은 기본적인 인간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단이 없는 상태로 영양실조, 질병, 높은 영아 사망률 등의 상태를 말한다. 상대적 빈곤이란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영위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최근에는 경제적 측면에서 소득 기준에 의한 분류뿐 아니라 행정적-법적 빈곤과 사회·문화적 빈곤을 포함한다(안순홍, 1997).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2001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이하인 모든 가구가 근로능력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생계비를 지원 받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절대 빈곤 인구를 산정하면 1999년에는 전체 인구의 9.9%가 이에 해당하였으며 상대 빈곤선에 의한 저소득층 인구는 전체 인구의 13.2%인 619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이혜원, 2000). 619만명 중 118만명이 위에서 언급한 최저 생활 보호를 받고 있으며 57만명이 한시적 생활 보호를 받으나, 나머지 444만명은 아직 기초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해 우리 나라의 최근의 IMF 상황은 저소득층에게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침으로서 계층간 소득 불균형 상태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어머니 가장이 부쩍 늘어남으로서(조선일보, 2001.8.12; 2001. 8.14), 여성의 경우 생활고뿐 아니라 남편 실직과 가정파탄, 그리고 아동 양육이라는 사중고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두 부모가 모두 일하고 있는 가족이나 또는 편부모가족을 대신하여 아동을 돌봐주고 있는 어린이집은 총 19,266개소로 2000년 9월말 현재 아동 총 684,000명이 재원하고 있다. 총 보육 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 아동은 37,078명이며 기타 저소득층 아동은 109,779명으로 146,878명이 행정적-법적 빈곤 개념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보건복지부, 2001). 그러나 보육서비스를 받아야만 하는 저소득층 가족의 자녀가 얼마나 더 있는지는 아직 그 수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또한 생활은 저소득층과 거의 유사하나 저소득층 여건에 부합되지 못해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대 빈곤선에 의한 저소득층 가족의 아동 수가 얼마나 더 있는지도 파악되지 못한 실정이다. 저소득층이 전체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던 간에 저소득층 가족은 사회적 지원이나 경제적 여건이 불충분하고 아동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매우 높아(박미령, 1992; 어주경, 1994) 이들 가족에 대한 아동 양육 지원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에서 우선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대처가 매우 미흡하게 진행되어 왔다. 2002년부터 우리 나라 정부는 5세아 전체 중 2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뒤늦은 지원이지만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여러 선진국에서는 저소득층 자녀 양육을 위한 사회의 적극적 대처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미국의 경우 2명의 취학전 아동 중 한 명의 어머니가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4명 중 한 명이 저소득층의 빈곤한 상태에서 태어나는데 그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Children's

Defense Fund, 1999). 이에 미국에서는 30여년 전부터 보육을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 가족의 취약 아동을 대상으로 포괄적 서비스인 Head Start 프로그램을 연방정부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1999년 현재 총 아동 5명 중 2명이 이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Children's Defense Fund, 1999), 시작 당시 56만명에게 혜택을 주었던 것이 2000년 현재에는 85만 7천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빈곤은 아동에게 경제적 박탈 뿐 아니라 사회, 문화, 심리적 박탈의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가정환경상 부모의 직업이 제조업이나 생산 서비스업, 일용 노동이 많아 출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으며 주거환경은 주로 월세나 단칸방 등의 비좁고 목욕탕이 없는 주택에 살고 있으며 가족원간의 사생활이 보호되지 않고 가족 관계에서는 폭력, 아동구타, 배우자 학대, 이혼, 배우자 및 아동 유기, 부모 가출, 가족 해체 등의 문제가 보고 되고 있다(강명순, 2000; 박수경, 1992; 유희정, 1998; 이경림, 1997; 이은주·이재연, 1996; 한국가족학연구회, 1992; 허인영, 1999; Conger, McCarthy, Yang, Lahey, & Kropp, 1984; McCoby, 1980). 이외에 어머니 지향적인 경향, 외가 쪽 친척에 대한 친밀감, 가족 단위와 관련된 계획 능력의 부족 등의 특성과 자녀의 행동에 있어서는 순간적으로 쾌락에 빠지는 것, 쉽게 포기하는 것, 의존성, 생활의 어려움이나 갈등에 대한 빠른 노출, 부모로부터 일찍 방치되어 스스로 자기 보호를 하며 자람, 반말이나 욕 사용, 고집이 세고 샘을 잘 냄, 결식, 영양실조, 더러운 옷 등의 특성이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저소득층 가족의 특성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고 다각적으로 연구한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즉 저소득층 어머니들은 경제적 문제, 가족문제, 주위환경문제, 신체적·정신적 건강문제, 대인관계문제 등 많은 스트레스 생활 사건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중 가장 높은 부분이 자녀 교육비 부족으로 지적되었고, 그 다음이 자녀의 부정적 행동, 자녀양육과 교육분야로 지적되었다. 특히 가족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적이고 지원적인 측면이 감소하고 체벌과 같은 강압적인 양육방식이 증가하며 이것은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 증가나 아동의 자존감 저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희, 1986; 옥선화, 1992; 이재림, 옥선화, 2001; 전춘애, 박성연, 1996; 조희선, 1991; Belle, 1982; McCoby, 1980; McLoyd, 1990; Sampson & Laub, 1994).

우리 나라 저소득층 부모들은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육적인 열의를 지녀 자녀를 정서적,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다른 부모들처럼 저소득층 부모들도 교육열이 높고 학업성취에 대한 기대가 높아(김영희, 2001; 박미령, 1992) 자녀가 부모보다 안정되고 좋은 직업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과 계층 상승 이동에 대한 바람이 있었다. 또한 저소득층 어머니들은 자신의 행복보다 자녀의 장래가 중요하여 자녀에 대한 가치를 무엇보다도 우선시 하고 있었다(김태현, 조희선, 1991). 어머니들은 어려운 생활에서도 자녀를 삶의 기쁨의 원천이자 의지처라고 여기는 특성(김경애, 1999)들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부족한 물리적 환경을 대신하여 자녀의 정서적 측면에 대해 더 노력을 하기도 하였다(김영희, 1986).

이러한 저소득층의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 특히 가족의 생활방식 및 부모의 태도 등

은 저소득층 아동의 발달 및 성장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친다(Chase-Lansdale, Gordon, Brooks-Gunn, & Klebanov, 1997; Garrett, Ngandu, & Ferron, 1994; McLoyd & Wilson, 1991). 부모 간 갈등, 심리적 압박, 의료적 어려움, 경제적 위축감 같은 부정적인 경험들은 아동 발달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여 아동의 학업 성취, 인지 발달, 아동 행동상의 문제 및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하고(김경희·황혜정, 1998; 어주경, 1994; Reynolds & Gill, 1994),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문제를 나타내며(조성연, 1997; Jaffe, 1997; McDowell & Lindholm, 1986), 아동의 낮은 자존감과 관련성(최은영, 1994; Demo & Savin-Williams, 1983; McDowell & Lindholm, 1986)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정서·행동문제와 비행을 더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김경희·황혜정, 1998) 이는 저소득층 가정의 부모가 결혼생활에 대하여 낮은 만족감, 심리적 우울감, 높은 스트레스를 갖고 있을 확률이 높고(김양희, 1993; 김인숙, 1994; 옥선화, 1992), 자녀를 대할 때 적대적인 양육 행동을 보이기 쉬워, 결과적으로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심한 경제적 박탈을 경험한 5-10세 아동들은 부정적, 공격적인 행동이 연령에 따라 증가하였고 저소득층 남아들은 중·상류 남아와 비교해 볼 때, 어머니의 보호와 지지가 부족하여 특별히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은주·이재연, 1996). 이러한 사회정서적 문제 뿐 아니라 저소득층 빈곤 가정일수록 정상적인 신체적 발달에 있어 문제가 지적되며(Klerman, 1991; Brooks-Gunn, Duncan, & Britto, 1999), 낮은 상황이나 타인에게 잘 적응하지 못한다(박용임, 1987). 아동이

계속적으로 빈곤을 경험할 경우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인지적 능력이나 사회정서적 기능에 있어 문제가 가중되어 더 해로울 수 있다(Garrett, Ngandu, & Ferron, 1994; McLoyd, 1990).

국내외에서 수행된 여러 연구들은 사회계층에 따라 유아의 지능, 기초적인 수학 개념, 창의성 및 추론 능력 등의 인지적 발달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강경일, 1980; 김영숙, 1997; 김은희, 1997; 이종승, 1981; Barnett, 1998; Bereiter & Engelman, 1966; Case, Griffin & Kelly, 1999). 지적 능력 발달에 있어서 저소득층 유아들은 중류층 유아들에 비해 유아기를 거치면서 그 지적 능력의 차이가 점차 벌어졌고 사회 계층에 따라 아동의 학업성취 수준에 있어 차이가 있었다(김희경, 1983; Sigel & Olmsted, 1971). 또한 저소득층 어머니의 특성 중 하나인 학력만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연구한 결과,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자녀는 유치원 입학시 학업 기술에 있어 가장 취약한 능력을 나타내었다(Christian, Morrison, & Bryant, 1998). 한국문화재단연구원(1989)에서 수행한 연구에 의하면, 저소득층 유아들은 공간 개념을 제외한 분류, 서열, 수, 시간 개념, 읽기와 쓰기 능력에서 중상류층 유아들보다 더 낮은 학업성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은 중산층 아동에 비해 언어 속도가 느리고, 더 오랫동안 미숙한 발음을 하며, 어휘가 적고, 문장 길이도 더 짧은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Bernstein & Henderson, 1973). 가정 혹은 지역사회로부터 바람직한 언어모델을 제공받을 수 없기 때문에 빈민지역 아동들이 흔히 적절하지 않은 대상에게 반말이나 욕 사용이 빈번하게 된다(유희정, 1996). Parisi와 Grannelli(1979)는 가정의 사회

적인 환경과 언어와의 관계의 연구결과, 문장 길이에 있어 계층간 차이가 있어서 상류계층 아동은 하류층보다 더 긴 문장을 쓰고 있었고 특히 어휘인 경우 차이가 많이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영아기의 어린 시기에 우수한 언어 중재를 기관에서 받거나 교사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많았던 아동의 경우에는 구어 발달이 매우 잘 이루어졌으며 인지 점수와 학문적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Fowler, Ogston, Roberts-Fiati, & Swenson, 1997; Phillips, Scarr & McCartney, 1987; Whitebook, Howes, & Phillips, 1990). 읽고 쓰기와 관련된 문해 발달 연구에서도 저소득층 빈곤 가정의 자녀가 더딘 발달을 보이거나 다른 발달 양상을 나타낸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Heath, 1983; Edwards, 1989).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일수록 중산층 가정의 자녀보다 어휘 산출이 적었으며, 문해 활동의 수가 적었고, 아동에게 적합한 책이 없었으며 부모가 적절한 읽기 모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Edwards, 1989; Heath, 1983; McCormick & Mason, 1986; Ninio, 1980). Whitehurst와 Valdez-Menchaca (1992)는 저소득층 어머니와 아동의 책읽기 활동 중재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의미론적으로 다양한 명사 산출, 주제의 계속적 발화, 문법적으로 더 길고 복잡한 문장 사용 등이 통제 집단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남을 제시하면서 이들 가족을 위한 조기 문해 중재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아동의 놀이행동 역시 가정의 사회 경제적 수준이나 문화적인 배경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상놀이에 관한 여러 연구결과(Rosen, 1974; Smilansky, 1968; Smith & Dodsworth, 1978; Udwin & Shumukler, 1981)에 의하면, 사회경제적 수준이 하류계층

인 아동은 중류계층의 아동보다 상상놀이에 덜 참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Rubin, Maioni와 Hornung(1976)의 연구에 의하면, 중류계층의 아동은 하류 계층의 아동보다 병행놀이와 기능놀이에 덜 참여하는 반면에 연합놀이와 협동놀이 그리고 구성놀이를 더 많이 하였다라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의 Head Start 아동 21명을 교실에서 조사한 결과 이들은 다른 놀이 유형보다 기능놀이에 더 빈번하게 참여하고 있었다(Weinberger & Starkey, 1994).

이상과 같이 저소득층 아동의 발달적 특성과 놀이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와 문화적으로 다른 국외의 연구들이고 국내의 연구들 중 이들의 발달 특성 및 놀이 행동에 대한 것을 포괄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아직 없다. 그리고 국내의 연구들은 대부분이 이들 가족의 특성이나 저소득층 아동의 자존감 등의 사회정서적인 측면에서의 부정적 행동에 주로 초점을 두고(어주경, 1994) 연구되어져 왔거나, 저소득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 성적이나 학교 생활 적응을 살펴본 연구(옥경희, 김미혜, 천희영, 2001) 등이 있었다. 특히 놀이 발달에 있어 상징적 놀이의 절정을 보이고 규칙을 가진 게임으로 전이되는 시기인 4-5세는 각 영역 발달에서 역시 중요한 성장을 보인다. 또한 4-5세 시기의 놀이발달은 인지적으로나 사회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성장을 반영해 주고 취학 후 아동의 학교에서의 성공적 성취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 요인임을 고려할 때 이들의 발달 유형에 대한 파악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여겨진다. 특히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교육 중재 프로그램은 좀 더 어릴수록, 그리고 각 아동의 특성을 파악하여 그에 알맞는 발달적, 사회·문화적 활동을 제공할 때 그 효과가 크리라 여겨지며 이러한 교육 중재 프로그램

개발(김명순, 2001)을 위해 본 연구의 결과가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기관에서의 보육이 강화되어 가는 추세에서 이들의 놀이 행동을 이해하고 발달적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 저소득층 아동에게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적합한 중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4-5세 저소득층 아동의 발달 영역별 특성을 성별, 연령

별로 알아보고, 어린이집 교실내 놀이 행동 및 흥미영역 참여도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층 아동의 각 영역별 발달 수준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저소득층 아동의 교실내 놀이행동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 저소득층 아동의 교실내 흥미영역 참여도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한 어린이집에서 법정 저소득층으로 구분된 가족의 만 4, 5세 아동 총 19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선정 기준으로는 먼저 서울 시내 영등포구, 구로구, 관악구, 강서구, 노원구, 강동구에 소재한 어린이집 목록에서 만 4-5세 반이 2개 반 이상이 있는 곳을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두 번째는 선정된 어린이집에 법정 저소득층 4, 5세 아동이 총 5명 이상 있는지 여부를 전화로 확인한 뒤 있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의 승인을 받았다. 이러한 과정을 밟아 18곳 어린이집이 연구에 참여하였고 각 어린이집에서 7-23명까지의 저소득층 아동이 선정되어 총 194명이 연구 대상에 선정되었다. 선정된 연구 대상 아동의 연령과 성별 구성을 보면, 4세아는 108명(남 56명, 여 52명)이었고, 5세아는 86명(남 36명, 여 50명)이었다.

법정저소득층 아동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아동, 「모자복지법,

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부자가정 아동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취학전 2년까지의 아동이다. 기타 저소득층 아동이라 함은 가족의 소득기준이 3인 이하 기준 95만원, 4인 기준 105만원인 가구를 말함이다. 이 중 ① 맞벌이 부부 가구로서,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의 자녀 ② 편부모 가정, 보훈가족, 결손가정의 자녀 등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의 자녀 ③ 기타 일반주민의 자녀의 순으로 보육료 감면대상자 실태조사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01).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구 대상 어머니, 아버지의 연령은 어머니가 30~34세 33.5%, 아버지가 35~39세 33.0%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 수준은 어머니 아버지 모두 고졸이 각각 35.1%, 30.4%로 가장 많았다. 교육수준은 전체의 반 이상이 밝히지 않고 있어 고졸이하의 경우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직업을 보면 생산직과 무직이 각각 24.7, 26.1 %로 가장 많았는데, 무직의 경우에는 집에서 단순 부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표 1〉 연구대상 가족의 일반적 특성(N=194)

		어머니	아버지
		빈도(%)	빈도(%)
연령	25~29세	25 (12.9)	7 (3.6)
	30~34세	65 (33.5)	32 (16.5)
	35~39세	60 (30.9)	64 (33.0)
	40~44세	19 (9.8)	49 (25.3)
	45세 이상	6 (3.1)	7 (3.6)
	무응답	19 (9.8)	35 (18.0)
교육 수준	국졸	2 (1.0)	2 (1.0)
	중졸	9 (4.6)	7 (3.6)
	고졸	68 (35.1)	59 (30.4)
	전문대졸	1 (0.5)	2 (1.0)
	대졸이상	3 (1.5)	11 (5.7)
	무응답	111 (57.2)	113 (58.2)
직업	무직·주부	42 (21.6)	24 (12.4)
	생산직	48 (24.7)	60 (30.9)
	판매서비스직	17 (8.8)	11 (5.7)
	사무직	17 (8.8)	24 (12.4)
	관리직	0 (0.0)	0 (0.0)
	전문직	1 (0.5)	1 (0.5)
	무응답	69 (35.6)	74 (38.1)

으로 교사들이 보고하였다. 아버지의 직업을 보면 생산직이 30.9%로 가장 많았고 무직의 경우도 12.4%가 되었다.

연구 대상 어린이집의 특성을 보면 교사들의 학력은 대졸과 전문대졸이 각각 57.6%와 33.7%였고 교사의 경력은 1-2년 사이가 39.0%, 2-4년이 12.8%, 5-6년이 12.8%, 7-8년이 25.6%, 9-10년이 9.9%였다. 한 반의 아동의 수는 평균 20.7명(범위 10-35명)이었고, 한 반에 있는 교사의 수는 1명이 92.5%이었고 2명이 있는 반이 7.5%였다.

2. 연구도구

1) 아동의 발달 수준 검사

4-5세 아동의 발달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유아발달수준 검사'(국립교육평가원, 1996)를 사용하였다. 본 검사는 4.0세 이상 7.0세 미만 아동의 발달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로 총 77개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하위 항목별로는 운동기능이 8문항, 지각이 10문항, 언어가 20문항, 학습에 대한 관심과 창의성이 8문항, 수과학이 9문항, 표현력이 7문항, 그리고 사회성이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유아발달수준 검사는 우리나라에서 표준화된 검사로서 백분위 방법으로 규준점수가 해당 연령별로 제시되어 있다. 안면타당도, 내용타당도 및 구인타당도를 거쳐 문항을 선정하였고 신뢰도는 Cronbach α 계수로 운동기능 .85, 지각 .91, 언어 .95, 학습에 대한 관심 및 창의성 .88, 수과학 .94, 표현력 .87, 그리고 사회성 .97이었다.

2) 아동의 놀이 행동 관찰

아동의 놀이행동을 관찰하기 위해 Rubin, Maioni와 Hornung(1976)이 Piaget와 Parten의 놀이 유형을 기초로 보완한 사회적·인지적 놀이유형 관찰 범주를 사용하였다. 놀이는 총 12 유형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으며 놀이가 아닌 행동과 방관자적 행동이 첨가되어 있다. 12 유형의 놀이 유형은 단독-기능놀이, 단독-구성놀이, 단독-극적놀이, 단독-게임놀이, 병행-기능놀이, 병행-구성놀이, 병행-극적놀이, 병행-게임놀이, 집단-기능놀이, 집단-구성놀이, 집단-극적놀이, 집단-게임놀이이다. 본 연구에서는 놀이유형을 관찰함과 동시에 아동이 놀이하고 있는 흥미영역을 관찰하여 기록하였다.

아동의 놀이는 오전 자유선택놀이 시간 중에 30초 관찰, 10초 기록을 1회 관찰단위로 하여 놀이유형과 흥미영역을 총 30회 관찰하여 분석하였다. 아동의 놀이는 3명의 아동학 석사 전공자가 관찰하였다. 각 세명의 다른 아동이 자유선택놀이를 하는 장면을 찍은 30분 짜리 비디오 테이프 3개를 가지고 아동을 관찰한 후 분석한 관찰자간 신뢰도는 Cohen의 Kappa계수로 .85 이었다.

3. 연구절차

1) 예비조사

본 연구에서 사용할 유아발달검사의 문항과 절차상 주의점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검사자 훈련을 실시하였다. 또한 문항 중 교사에 의해 관찰되어 체크되어야한다고 판단되는 문항들을 뽑아 교사들이 체크할 수 있도록 따로 문항을 분리하였다. 이때 교사가 관찰하여 체크할 적절한 문항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교사 5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을 조정하였다. 또한 놀이관찰에 대한 훈련을 위해 아동 3명의 놀이 행동을 녹화한 비디오로 놀이관찰 항목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였고 일치하지 않은 관찰 항목에 대해서는 논의한 후, 또 다른 3명 아동의 놀이 행동 비디오를 관찰하며 관찰자간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2) 본조사

본 조사는 2000년 6월부터 두 달간 실시되었는데, 연구 대상 어린이집에 전화를 통해 방문 일자를 결정한 후 놀이 관찰자와 발달 검사자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였다. 관찰자는 우선 교사로부터 각 4, 5세 반의 저소득층 아동을 소개받고 그 아동의 얼굴을 익힌 후 오전 자유선택놀이 시간에 놀이 관찰을 하였다. 한 반의 놀이 관찰이 끝난 후, 다른 반으로 이동하여 관찰하였다. 발달 검사의 경우 개별적으로 아동을 한 명씩 별도로 마련된 방에 데려와 본 연구를 위해 훈련된 검사자가 유아발달검사를 실시하였다. 발달 검사와 놀이관찰은 한 기관에서 1-3일이 걸렸다. 교사가 체크해야 하는 발달검사문항을 각 교사에게 배부한 후 3-7일 후에 다시 기관을 방문하여 수거하거나 서신으로 수거하였다. 인구론적 배경의 경우에는 검사자가 기관 방문시 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연구 대상 아동의 가정환경 조사서를 보고 기록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원변량분석과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및 해석

1. 아동의 발달 특성

4-5세 저소득층 아동의 발달 특성에 대한 결과를 아동의 연령 및 성별에 따라 발달 영역별로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면 저

소득층 아동에게 있어 운동발달 평균 점수는 3.76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지각발달이었다. 평균 점수가 낮은 영역은 수과학발달이 2.76점으로 가장 낮았고 표현발달과 사회성발달 영역의 순으로 낮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세의 경우 운동발달이 3.55점으로 수준이 높는데 비해 수학발달은 매우 낮아 2.39점이었고 표현발달도 2.87점이었다. 5세의 경우도 4세와 같게 운동 발달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수학발달 및 표현발달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4세아에 있어 여아의 발달점수가 남아에 비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5세의 경우 수과학영역을 제외하고 남아보다 여아의 발달점수가 모두 높았다.

이러한 점수를 발달 표준표와 비교해 볼 때 4세의 경우에는 운동기능 발달이 45-51% 사이에, 지각발달은 27-31%, 언어발달은 40-41%, 학습에 대한 관심 및 창의성발달은 40-44%, 수과학발달은 17-19%, 표현력발달은 49-54%,

사회성 발달은 32-36% 백분율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분율로 비교해 보면, 본 연구 대상 중 4세의 경우 표준집단 4세보다 수과학 발달 및 지각발달, 사회성 발달의 순으로 발달 수준 점수가 낮았다. 5세의 경우에는 운동기능 발달이 56-63% 사이에, 지각발달은 35-39%, 언어는 54-56%, 학습에 대한 관심 및 창의성은 51-56%, 수과학발달은 24-29%, 표현력발달은 56-61%, 사회성 발달은 43-46% 백분율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대상 중 5세의 경우도 표준집단 5세보다 수과학 발달 및 지각 발달, 사회성 발달의 순으로 발달 수준 점수가 낮아 4세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발달의 평균에 있어 연령 및 성별에

〈표 2〉 저소득층 아동의 연령별, 성별에 따른 발달 특성(N=194)

아동 발달 영역	4세			5세			전체		
	남 M (SD)	여 M (SD)	소계 M (SD)	남 M (SD)	여 M (SD)	소계 M (SD)	남 M (SD)	여 M (SD)	계 M (SD)
운동발달	3.41(.71)	3.71(.60)	3.55(.67)	4.00(.62)	4.04(.59)	4.02(.60)	3.64(.73)	3.87(.61)	3.76(.68)
지각발달	2.96(.64)	3.09(.65)	3.02(.65)	3.67(.57)	3.71(.58)	3.69(.57)	3.24(.70)	3.39(.69)	3.31(.70)
언어발달	2.74(.67)	3.28(.55)	3.00(.67)	3.47(.87)	3.65(.63)	3.57(.74)	3.03(.83)	3.46(.62)	3.25(.76)
학습발달	2.63(.70)	3.35(.73)	2.98(.80)	3.37(.98)	3.52(.75)	3.45(.85)	2.93(.90)	3.43(.74)	3.20(.85)
수과학발달	2.26(.60)	2.52(.61)	2.39(.62)	3.30(.81)	3.17(.67)	3.22(.73)	2.67(.86)	2.84(.71)	2.76(.79)
표현발달	2.63(.62)	3.12(.73)	2.87(.71)	3.12(.88)	3.45(.71)	3.31(.78)	2.83(.77)	3.28(.73)	3.07(.78)
사회성발달	2.74(.59)	3.24(.65)	2.98(.67)	3.32(.88)	3.44(.65)	3.39(.75)	2.97(.77)	3.34(.65)	3.16(.73)
합계	19.37(3.46)	22.30(3.27)	20.80(3.66)	24.25(4.65)	24.97(3.56)	24.67(4.05)	21.30(4.62)	23.60(3.66)	22.51(4.28)

〈표 3〉 저소득층 아동의 연령별, 성별에 따른 발달영역별 이원변량분석결과(N=194)

	운동	지각	언어	학습	수과학	표현	사회
주 효과							
연령	24.74***	54.04***	30.48***	15.75***	75.08***	15.08***	15.48***
성별	3.19	.97	12.98***	14.04***	.47	14.93***	9.72**
상호작용 효과							
연령×성별	2.03	.23	3.31	6.19*	3.79	.58	3.69

* p<.05 ** p<.01 *** p<.001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이 원변량분석을 한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에서 보면, 모든 발달 영역에 있어 4세와 5세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성별에 있어서 언어, 학습에 대한 관심 및 창의성, 표현, 사회성 발달 영역에 있어 남녀 아동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습에 대한 관심 및 창의성 발달영역은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즉 4세 보다 5세 아동들이 학습에 대한 관심 및 창의성 발달점수가 높았으나 4세의 경우 남아의 점수가 여아의 점수보다 크게 낮았으나 5세 남아의 경우 여아의 점수와 큰 차이가 없었다.

2. 아동의 놀이 행동

본 연구결과에서의 아동의 놀이 행동은 아동이 참여한 사회인지적 놀이 유형에 대한 결과 및 흥미영역의 참여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먼저, 교실에서의 자유놀이시간 중에 아동이 참여한 사회인지적 놀이 유형 결과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전반적으로 저소득층 아동들은 집단놀이를 가장 많이 하였는데 그중 집단-기능놀이가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4세 아동의 경우 방관자적 행동이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고, 집단-구성놀이, 집단-극적놀이, 단독기능놀이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단독게임, 병행-게임, 병행-극적, 집단-게임의 놀이 유형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5세 아동의 경우에도 방관자적 행동 빈도가 높았으나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놀이 유형은 집단-기능놀이였고 그 다음이 집단-극적, 집단-구성, 단독기능놀이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아의 경우 집단-기능, 집단-구성, 집단-극적, 병행-구성의 순으로 높았다. 여아의 경우 집단-

기능, 방관자적 행동, 단독-기능, 집단-극적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남아에 비해 여아의 방관자적 행동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러한 아동 놀이 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χ^2 검증을 연령별로 한 결과, 4세와 5세 모두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4세 $\chi^2(13, N=108) = 1354.8 (p<.001)$ / 5세 : $\chi^2(13, N=86) = 1629.4 (p<.001)$]. 성별로 살펴본 결과, 남아와 여아 모두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아 : $\chi^2(13, N=92) = 1161.2 (p<.001)$ / 여아 : $\chi^2(13, N=102) = 1770.8 (p<.001)$].

아동의 놀이행동에 대한 결과 중 두 번째로 아동의 실내 흥미영역 참여도를 보면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보면 아동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여 놀이한 곳은 블록놀이영역이었고, 그 다음이 조작놀이영역, 역할놀이영역, 미술영역의 순이었다. 4세의 경우에는 블록놀이영역에 대한 선택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조작영역, 역할놀이영역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4세 남녀별 흥미영역 선택은 다르게 나타나 남자는 블록영역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그 다음이 조작, 역할놀이 영역의 순인 반면 여자는 조작놀이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블록영역과 역할놀이 영역의 순이었다. 5세는 블록영역, 미술영역, 조작영역의 순으로 높게 선택하여 미술영역에 대한 흥미영역 선택이 4세와 달랐다. 남녀아의 흥미영역 선택은 다르게 나타났는데 5세 남자는 블록영역, 조작영역, 역할놀이 영역으로 순으로 나타나 4세 남아와 같은 경향을 나타낸 반면 5세 여자는 미술영역, 조작놀이영역, 블록영역의 순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아동의 흥미영역 참여빈도는 4세와 5세 모두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4세 : $\chi^2(8, N=108) = 2005.0 (p<.001)$ / 5세 : $\chi^2(8, N=86) = 1471.1 (p<.001)$].

〈표 4〉 저소득층 아동의 연령별, 성별에 따른 놀이 유형빈도(N = 194)

연령	4세 (n=108)		5세 (n=86)		전체		
	남	여	남	여	남	여	계
놀이유형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단독-기능	174(10.9)	161(11.4)	79(7.5)	161(11.4)	253(9.6)	322(11.4)	575(10.5)
단독-구성	154(9.7)	87(6.2)	77(7.3)	36(2.6)	231(8.8)	123(4.4)	354(6.5)
단독-극적	45(2.9)	9(.6)	7(.7)	18(1.3)	52(2.0)	27(1.0)	79(1.4)
단독-게임	1(.1)	0(.0)	2(.2)	1(.1)	3(.1)	1(.0)	4(.1)
소 계	374(23.6)	257(18.2)	165(15.7)	216(15.3)	539(20.4)	473(16.8)	1012(18.5)
병행-기능	137(8.6)	138(9.8)	44(4.2)	147(10.4)	181(6.9)	285(10.1)	466(8.5)
병행-구성	183(11.5)	105(7.4)	83(7.9)	114(8.1)	266(10.1)	219(7.8)	485(8.9)
병행-극적	32(2.0)	23(1.6)	3(.3)	11(.8)	35(1.3)	34(1.2)	69(1.3)
병행-게임	26(1.6)	7(.5)	3(.3)	0(.0)	29(1.1)	7(.2)	36(.7)
소 계	378(23.7)	273(19.3)	133(12.7)	272(19.3)	511(19.4)	545(19.3)	1056(19.4)
집단-기능	159(10.0)	139(9.9)	197(18.8)	287(20.4)	356(13.5)	426(15.1)	782(14.3)
집단-구성	207(13.0)	175(12.4)	137(13.0)	126(8.9)	344(13.0)	301(10.7)	645(11.8)
집단-극적	223(14.0)	145(10.3)	124(11.8)	163(11.6)	347(13.1)	308(10.9)	655(12.0)
집단-게임	31(1.9)	60(4.3)	64(6.1)	13(.9)	95(3.6)	73(2.6)	168(3.1)
소 계	620(38.9)	519(36.9)	522(49.7)	589(41.8)	1142(43.3)	1108(39.3)	2250(41.2)
방관자적 행동	128(8.1)	259(18.4)	122(11.6)	183(13.0)	250(9.5)	366(13.0)	692(12.7)
비놀이 행동	90(5.7)	102(7.2)	108(10.3)	150(10.6)	198(7.5)	252(8.9)	450(8.2)
계	1590(100.0)	1410(100.0)	1050(100.0)	1410(100.0)	2640(100.0)	2820(100.0)	5460(100.0)

〈표 5〉 저소득층 아동의 연령별, 성별에 따른 흥미영역의 선택(N = 194)

연령	4세 (n=108)		5세 (n=86)		계
	남	여	남	여	
흥미영역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블록 놀이	434(45.9)	224(19.8)	263(32.8)	192(16.8)	1113(27.8)
미술 놀이	44(4.7)	91(8.1)	109(13.6)	282(24.6)	526(13.1)
음률 놀이	27(2.9)	61(5.4)	42(5.2)	48(4.2)	178(4.4)
도서 영역	43(4.5)	134(11.9)	43(5.4)	71(6.2)	291(7.2)
언어 영역	9(1.0)	38(3.4)	30(3.7)	82(7.2)	159(4.0)
조작 놀이 영역	165(17.4)	272(24.1)	145(18.1)	171(14.9)	753(18.7)
역할 놀이 영역	144(15.2)	251(22.2)	119(14.8)	196(17.1)	710(17.6)
수과학 영역	37(3.9)	32(2.8)	10(1.3)	24(2.0)	103(2.5)
기타	43(4.5)	26(2.3)	42(5.2)	79(6.9)	190(4.7)
계	946(100.0)	1129(100.0)	803(100.0)	1145(100.0)	4023(100.0)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4-5세 저소득층 아동의 발달은 전반적으로 운동발달 점수가 가장 높았고 인지영역인 수과학발달이 가장 낮았으며, 자신을 표현하는 표현영역과 사회성발달의 순으로 낮았다. 이는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인지 발달 및 학업 성취에 있어 부정적인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는 국내외의 연구 결과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김경희, 황혜정, 1998; 어주경, 1994; McLoyd, 1990; Reynolds & Gill, 1994). 또한 계속적으로 빈곤을 경험할 경우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사회 정서적 발달에 있어 문제가 야기된다는 관련 연구결과(조성연, 1997; Jaffe, 1997)들과 일치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저소득층 아동들의 경우 운동 발달이 가장 점수가 높았는데 이는 빈곤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정상적 신체발달에 문제가 야기되거나 결식, 영양실조 등의 특성을 보고한 기존 연구들(Klerman, 1991; Brooks-Gunn et al., 1999)과는 부분적으로 일치하지 않았다. 이를 몇 가지로 해석해 보면, 본 연구에서는 운동발달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기존 연구에서 측정한 신체발달이나 건강, 영양에서 다른 항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대상인 우리나라 도시 저소득층 아동들의 경우 산동네에 살거나 가파른 계단을 이용하는 주거 환경적인 특성이 있고(김명순, 2001), 가정에서의 놀이 형태가 가정내에서 보다는 골목에서 뛰어 놀면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이경림, 1997) 이들의 운동발달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석과 맥을 같이 하는 결과로 지각발달도 운동발달 다음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났는

데, 이는 일상생활에서 식사 준비나 옷입기 등을 부모의 도움없이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 소근육 및 지각발달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4세 남아들이 4세 여아나 5세 남녀아에 비해 전반적인 영역에서 가장 낮은 발달 점수를 나타내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층 남아들이 다른 아동들에 비해 특별히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제시한 연구들(이은주, 이재연, 1996)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특히 4세 남아가 5세 남아 보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더 받은 이유를 추론해보면, 저소득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적절하고 체계적인 양육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게 됨으로 인해 가정의 부정적 영향이 점차 감소될 수 있었을 것이다. 5세 아동의 사전 경험 유무를 본 연구에서 조사하지는 못했으나 어린이집에 1년 더 다녔을 것으로 추정되는 5세가 4세보다 이러한 지속적 효과를 더 크게 보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추측은 다른 계층에 있는 종일제 아동의 발달과 비교를 통해 밝혀져야 하고, 또한 4세 이전 연령 아동의 발달과 연결하여 추후에 종단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문항들을 살펴보면, 지각발달에서 '악기소리, 음 구분하기(1.84점)', 수과학영역에서 '시간 개념(1.82점)', '부분과 전체에 대한 개념(2.29점)', '공간 관계 인식하기(2.39)', 언어영역에서 '비슷한말 반대말 이해하기(2.51)', 표현력발달에서 '친구의 작품 감상하고 평가하기(2.71)', 사회성발달 영역에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대처하기(2.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악기소리,

음 구분하기'와 '친구의 작품 감상하고 평가하기' 등은 어린이집 교육활동으로 자주 제시되어 있어야 아동이 경험할 수 있었을 문항이다. 우리나라 유아교육기관에서 가장 적게 하는 활동 중 하나가 감상하기 활동이므로 어린이집에서도 이에 대한 경험이 적어, 저소득층 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본 연구에서도 점수가 낮게 나올 수 있다. 그 외에 사회성발달 영역에서의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던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대처하기'의 항목의 경우, 이러한 사회적 기술은 이 시기부터 형성되기 시작하는 또래간 관계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술이며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많이 할수록 집단에서 무시이나 거부아가 되기가 쉽다(송미선, 1995; Dodge, 1983). 또래에게 오랜 기간동안 무시되거나 거부될 경우 좀 더 넓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부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여 부적응으로 어려움을 계속 경험하게 될 것이다(송명자, 1995; Parker & Asher, 1987). 그러므로 이러한 취학전 아동 중 특히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좀 더 적절한 사회적 기술 및 행동을 습득하도록 도와주는 중재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언어영역의 발달을 보면, 4세의 경우는 전체 수준의 40-41%, 5세는 54-56% 수준으로 다른 영역 발달에 비해 비교적 높아 저소득층 아동 대상의 다른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미국의 경우 저소득층 자녀의 발달 중 언어발달이 매우 더디어 영아기부터 이들을 위한 언어중재를 위해 가족 문해 프로그램(김명순, 1996) 등 공적 개입을 통한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저소득층 부모들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녀 교육에 대한 높은 열의를 나타내고 있다(김영희,

2001; 박미령, 1992). 특히 취학전 아동을 둔 경우 초등학교 준비를 위한 글자 배우기 과제를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는 한 사례로서 본 연구에서 어머니들에게 인구론적 배경과 함께 추가로 질문한 것 중 '아동이 그간에 책을 선물로 받아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64.1%가 없다고 대답한 반면, '학습지를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한 적이 있으나 지금은 안한다'가 37.8%, '지금도 하고 있다'가 43.2%로 두 가지 응답을 합하면 총 81% 어머니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학습지를 시킴으로써 글자를 쓰고 읽는 한글 학습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 가정에서 다양한 언어 환경을 제공하고 책읽기와 관련하여 적절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가(소현아·김명순, 2000)는 추후에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인지적 놀이 유형의 결과를 보면, 집단놀이를 가장 많이 하였고 그 중 집단-기능놀이를 많이 한 반면, 4세는 물론 5세의 경우에도 집단-게임은 1%도 못 미치는 비율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4세와 5세 모두 단독-기능놀이의 비율 및 방관자적 행동과 비놀이 행동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Rubin, Watson와 Jambor (1978)는 4세와 5세 연령에 따른 놀이 차이를 비교한 결과, 4세 아동이 5세보다 기능놀이 빈도가 높고 극적놀이 및 집단놀이의 빈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단독놀이와 쳐다보기, 비 놀이 행동이 더 높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저소득층의 아동들이 기능놀이에 더 빈번하게 참여하였다는 Weinberger와 Starkey(199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집단놀이 중 게임의 경우에는 매우 낮은 비율이 나

타나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Rubin은 또 다른 연구에서 단독놀이는 사회적 놀이의 미성숙을 의미하지만 특히 단독-기능놀이만이 사실상 사회적 미성숙과 관련되는 반면, 단독-구성놀이와 같은 유형들은 집단 놀이에 비해서 더 높은 수준의 사회-인지적 성숙을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아동이 성숙함에 따라 단독놀이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단독-기능놀이에서 단독-구성놀이나 단독-극적놀이를 전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Rubin, Maioni, & Hornung, 1976). 이러한 주장에 기초해 볼 때 본 연구의 저소득층 아동은 사회-인지적으로 더 낮은 단계인 단독-기능놀이의 참여 빈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었고, 집단 놀이에 참여한다해도 집단-기능의 놀이 빈도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사회인지적으로 우세하고 발달된 놀이 유형의 놀이를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한편, 본 연구 결과 단독-극적, 병행-극적이거나 게임놀이의 경우 4세와 5세 모두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놀이들은 다른 또래에게 방해받지 않고 좀 더 넓은 공간과 충분한 자료 및 놀이시간이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종일제 저소득층 어린이집의 경우 충분한 공간과 자료 사용이 어렵거나 덜 친숙했을 것(Johnson & Christie, 1999)으로 추측해 볼 수 있어 저소득층 아동을 포함한 반일제와 종일제 프로그램의 물리적 환경을 비교하는 포괄적 연구가 추후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저소득층 아동의 놀이 능력을 새롭게 보고 아동이 속한 놀이 환경의 특성을 좀 더 세분화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여러 연구들(Doyle, Ceschin, Tessier, & Doehring, 1991; Fantuzzo, Sutton-Smith, Coolahan, Manz, Canning, & Debnam, 1995)이 진행되고 있는데 추후에는 이러한 연구들이 우리 나라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 대상 아동의 흥미영역 참여도를 보면, 블록놀이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남아에게서 높았다. 4세 남아의 경우 45.9%와 5세 남아의 32.8%가 블록놀이에 참여하고 있어 남아의 경우 흥미영역에 대한 지나친 편중 현상이 보인 반면, 언어영역, 음률영역, 수과학영역, 미술영역에 대한 참여도는 5%미만으로 매우 낮았다. 이러한 편중 현상은 4세 남아들의 발달 영역별 수준이 낮은 결과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고, 또한 저소득층 어린이집 흥미영역의 부적절한 물리적 환경과 연관될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5세의 경우 미술영역에 대한 참여가 4세에 비해 매우 높아지고, 언어 및 음률영역 참여도 역시 약간 증가한 반면 수과학영역에 대한 참여도는 남아 1.3%, 여아 2.0%로 매우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한 집중적인 추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수과학발달 수준이 매우 낮으므로 이에 대한 중재프로그램이 요구되는데 불구하고 이들 어린이집 수과학활동이 실행되지 않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방관자적 행동 및 비참여가 많았는데 이는 저소득층 아동의 놀이 특성일 수도 있고, 한편 하루 일과가 느슨하게 진행되는 일반적인 종일제 어린이집의 특성일 수도 있어 이에 대한 결과의 해석은 종일제와 반일제 아동의 놀이 비교를 통해 좀 더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이 서울시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가정에서 돌보아 지거나 어린이집 등 양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에게 본연

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놀이 유형을 사회인지적 놀이 유형만을 관찰하였으나 추후에는 좀 더 다양한 놀이실 행동들, 즉 문제 행동이나 교사와의 상호작용시 행동, 그리고 실외에서의 거친신체놀이 행동 등을 포함하여 연구함으로써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아동에게 적합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점차 소득간의 격차가 커지고 국가에서 아동의 복지를 구현하고자 애쓰고 있는 시점에서 저소득층 아동의 발달이나 놀이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본 연구 결과가 이들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강경일(1980). 부모의 사회계층에 따른 자녀의 학업 성적 및 성격특성.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명순(2000). 빈곤해체 가정 아동의 변화 및 사회복지 통합적인 접근 연구. 강남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국립 교육 평가원 (1996). 유치원 교육 평가 연구 : 유아 발달 수준 검사. 서울 : 국립교육평가원.
- 김경애(1999). 흔들리는 모성, 지속되는 모성 역할 : 저소득층 모자 가정의 여성가장. 한국 여성학, 15(2), 87-115.
- 김경희·황혜정(1998). 저소득층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와 부모 자녀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 심리학회지 : 발달, 11(1), 12-26.
- 김명순(1996). 어머니의 문해 신념과 유아-어머니 상호작용 및 문어의 의미구성에 관한 질적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3), 305-325.
- 김명순(2001).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삼성 복지재단 제9회 학술대회 보육 시설에서의 포괄적 보육 서비스(pp. 49-72).
- 김양희(1993). 한국 가족의 갈등 연구. 서울 : 중앙대학교 출판부.
- 김영숙(1997). 유아의 자아 존중감에 영향 주는 가정 환경의 계 변인.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희(1986). 저소득층 어머니의 자녀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희(2001). 저소득층 어머니의 자녀교육 참여와 자녀의 학교 적응. 대한가정학회지, 39(1), 179-190.
- 김은희(1997). 아버지 변인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 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인숙(1994). 빈곤여성의 사회적 환경요인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와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태현·조희선(1991). 모자 가족과 부부 가족 간의 가족 스트레스 관련변인에 관한 비교 연구. 가족학 논집, 3, 99-129.
- 김희경(1983). 연령, 성, 지적발달 및 사회계층과 아동의 분류개념 발달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미령(1992). 도시 저소득층 가족의 부모-자녀문제. 한국가족학연구회(편), 도시저소득층의 가족문제(pp. 55-97). 서울 : 하우.
- 박수경(1992). 부모자녀의 상호작용 및 부모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 존중감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용임(1987). 사회계층에 따른 가정환경이 아동의 사회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보건복지부(2001). 2001년도 보육사업안내. 서울 : 보건복지부.
- 소현아·김명순(2000). 저소득층 어머니-아동간 책읽기 상호작용. *생활과학논집*, 10, 78-89.
- 송명자(1995). 발달 심리학. 서울 : 학지사.
- 송미선(1995). 놀이 개입 상황에 있어서 유아의 또래 지위에 따른 사회적 행동과 의사 소통 기술. 이화여자 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안순홍(1997). 빈곤과 노동시장 정책. 빈곤문제와 사회발전. 부산 : 부산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옥경희·김미혜·천희영(2001). 저소득층 아동의 학업, 정서 및 사회성 발달 : 부모보호와 자기 보호 비교. *아동학회지*, 22(2), 91-111.
- 여주경(1994). 저소득층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옥선화(1992). 도시 저소득층 가족의 부부문제. 한국가족학연구회(편). *도시저소득층의 가족 문제* (pp. 29-54). 서울 : 하우.
- 유희정(1998).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관한 연구. 한국 교육 개발원 98년도 연구 보고서.
- 이경림(1997). 빈곤지역 아동의 방과후 생활 실태 및 욕구에 관한 연구. 강남대 사회복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은주·이재연(1996). 빈곤층 아동의 또래역량. *아동학회지*, 17(2), 195-206.
- 이재림·옥선화(2001).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가족 생활사건, 사회적 지원, 자녀의 지원과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9(5), 49-64.
- 이종승(1981). 학업성취에 관련된 인과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혜원(2000). 저소득층 가정 아동 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 모형 개발, 결식 아동의 사회복지대책 워크샵 자료집. 서울 : 결식아동민간단체협의체 준비위원회.
- 전춘애·박성연(1996). 자녀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5), 115-129.
- 조성연(1997). 도시와 농촌지역 아동의 자존감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가정환경변인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3), 45-58.
- 조희선(1991). 모자 가족과 부부가족의 가족 스트레스에 관한 비교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2), 335-337.
- 최은영(1994). 생활 보호 대상자 자녀들의 빈곤에 대한 의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허인영(1999). 빈곤 결혼 가정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국 가족학 연구회 편(1992). *도시 저소득층의 가족 문제*. 서울 : 하우.
- 한국 문화재단 연구원 (1989). *사회 계층 문화와 아동발달에 관한 이론적 고찰*.
- Barnett, W. S. (1998). Long-term effects of cognitive development and school success. In W. S. Barnett & S. S. Boocock(Eds.), *Early care and education for children in poverty : Promises, Programs, and long-term results*. Albany, NY : SUNY.
- Belle, P. (1982). *Lives in stress : Woman and depression*. Beverly Hills, CA : Sage. 133-178.
- Bereiter & Engelman (1966). *Teaching the culturally disadvantaged child in preschool*. Ea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 Bernstein, B. & Henderson, D. (1973). Social class differences in the relevance of language to socialization. In B. Bernstein(Ed.), *Class, codes and control : Applied Studies towards a sociology of language, Volume 2* (pp. 24-47), Boston, MA : Routledge & Kegan Paul Ltd.
- Brooks-Gunn, J., Duncan, G., & Britto, R. (1999). Are socioeconomic gradients for children similar to those for adults? : Achievement and health of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In D. P. Keating & C. Hertzman(Eds.), *Developmental health and the wealth of nations : Social, biological and educational dynamics*. New York : Guilford.

- Case, R., Griffin, S., & Kelly, W. (1999). Socioeconomic gradients in mathematical ability and their responsiveness to intervention during early childhood. In D. P. Keating & C. Hertzman (Eds.), *Developmental health and the wealth of nations : Social, biological and educational dynamics*. New York : Guilford.
- Chase-Lansdale, P. L., Gordon, R. A., Brooks-Gunn, J., & Klebanov, P. K. (1997). Neighborhood and family influences on the intellectual and behavioral competence of preschool and early school-age children. In J. Brooks-Gunn, G. J. Duncan, & J. L. Aber(Eds.), *Neighborhood poverty : Context and consequences for children, Volume I* (pp. 79-118). New York : Russell Sage Foundation.
- Children's Defense Fund(1999). *The state of America's children-Yearbook*. Washington, DC : Children's Defense Fund.
- Christian, K., Morrison, F. J., & Bryant, F. B. (1998). Predicting kindergarten academic skills : Interactions among child care, maternal education, and family literacy environment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3*(3), 501-521.
- Conger, R. D., MaCarty, J. A., Yang, R. K., Lahey, B. B., & Kropp, J. P. (1984). Perception of child, childrearing values, and emotional distress as mediating links between environmental stressors and observed matern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55*, 2234-2247.
- Demo, D. H., & Savin-Williams, R. C. (1983). Early adolescent self-esteem as a function of social class : Rosenberg and Pearlin revisited.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8*, 763-774.
- Dodge, K. A. (1983). Behavioral antecedents of peer social status. *Child Development, 54*, 1386-1389.
- Doyle, A., Ceschin, F., Tessier, O., & Doehring, P. (1991). The relation of age and social class factors in children's social pretend play to cognitive and symbolic abi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4*(4), 395-410.
- Edwards, P. A. (1989). Supporting lower SES mothers' attempts to provide scaffolding for bookreading. In J. Allen & J. Mason(Eds.), *Risk makers, risk breakers : Reducing the risks for young literacy learners* (pp.222-250). Portsmouth, NH : heinemann.
- Fantuzzo, J., Sutton-Smith, B., Coolahan, K., Manz, P., Canning, S., & Dehnam, D. (1995). Assessment of preschool play interaction behaviors in young low-income children : Penn Interactive Peer Scal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0*, 105-120.
- Fowler, W., Ogston, K., Roberts-Fiati, G., and Swenson, A. (1997). The effects of enriching language in infancy on the early and later development of competence.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35*, 41-77.
- Garrett, P., Ngandu, N., & Ferron, J. (1994). Poverty experiences of young children and the quality of their home environment. *Child Development, 65*, 331-345.
- Heath, S. B. (1983). *Way with words : Language, life, and work in communities and classroom*. London : Cambridge University.
- Jaffe, M. L. (1997). *Understanding parenting*(2nd ed.). Boston : Allyn & Bacon.
- Johnson & Christie James (1999). *Play and early childhood development*. Pearson Education Inc.
- Klerman, L. V. (1991). The health of poor children : Problems and programs. In A. C. Huston(Ed.), *Children in poverty : Child development and public policy*. Port Chester, NY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cCoby, E. E. (1980). *Social Development : Psychological growth and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New York : Harcourt Brace Javanovich.
- McCormick, C., & Mason, J.(1986). Intervention procedures for increasing preschool children's

- interest in and knowledge about reading. In W. H. McDowell, S. L. & Lindholm, B. W. (1986). Measures of self-esteem by preschool children. *Psychological Reports*, 59, 615-621.
- McLoyd, V. C. (1990). The impact of economic hardships on black families and children : Psychological distress, parenting,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1, 311-346.
- McLoyd, V. C. & Wilson, L. (1991). The strain of living poor : Parenting, social support, and child mental health. In A. C. Huston (Ed.), *Children in poverty : Child development and public policy*. Port Chester, NY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inio, A. (1980). Picture-book reading in mother-infant dyads belonging to two subgroups in Israel. *Child Development*, 51, 587-590.
- Parisi, D. & Grannelli, W. (1979). Language and social environment at 2 years. *Merrill-Palmer Quarterly*, 25, 61-75.
- Parker, J. G. & Asher, S. R. (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adjustment :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 357-389.
- Phillips, D. A., Scarr, S., & McCartney, K. (1987). Dimensions and effects of child care quality : The Bermuda study. In D. A. Phillips (Ed.), *Quality in child care : What does research tell us?* (pp. 43-56). Washington, DC :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 Reynolds, A. & Gill, S. (1994). The role of parental perspectives in the school adjustment of inner-city black children. *Journal of Youth & Adolescence*, 23(6), 671-694.
- Rosen, C. E. (1974). The effect of sociodramatic play on problem-solving behavior among culturally disadvantaged pre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45, 920-927.
- Rubin, K. H., Maioni, T. L., & Hornung, M. (1976). Free play behaviors in middle and lower class preschoolers : Pattern and Piaget revisited. *Child Development*, 47, 414-419.
- Rubin, K. H., Watson, K. S., & Jambor, T. W. (1978). Freeplay behaviors in preschool and kindergarten children. *Child Development*, 49, 534-536.
- Sampson, R. & Laub, J. H. (1994). Urban poverty and the family context of delinquency : A new look at structure and process in a classic study. *Child Development*, 65(2), 523-540.
- Sigel, I. & Olmsted, P. (1971). The Development of classification and representational competence. *Readings in research in Developmental Psychology*, 197-203.
- Smilansky, S. (1968). *The effect of sociodramatic play disadvantages preschool children*. NY : Wiley.
- Smith & Dodsworth (1978). Social class differences in the fantasy play of preschool children.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33, 183-190.
- Udwin, O., & Shmukler, D. (1981). The influence of socio-cultural economic and home background factors on children's ability to engage in imaginative play. *Development Psychology*, 17, 66-72.
- Weinberger, L. A. & Starkey, P. (1994). Pretend play by African American children in Head Start.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9(3), 327-343.
- Whitebook, M., Howes, C., & Phillips, D. (1990). *Who cares? Child care teachers and the quality of care in America*. Final Report. National Child Care Staffing Study. Oakland CA : Child Care Employee Project.
- Whitehurst, G. T., & Valdez-Menchaca, M. C. (1992). Accelerating language development through picture book reading : A systematic extension to Mexican day care. *Developmental Psychology*, 28, 1106-1114.